

# 남아공 정치협상 과정

3835.3  
통정 (240.98)

8p.  
26cm



남아공 리카남리국  
 아파르헤이제르  
 남아공 정치  
 " 경제  
 " 외교

통 일 원

이 자료는 James Barber 박사가 쓴 『새로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설』(Forging the New South Africa)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서

- 흑백인종간 정치협상 과정과 이에 참여하는 주요 정파 및 정치지도자들의 입장
- 만델라대통령 집권이후 대두되고 있는 국가적 현안문제
- 정치·경제·사회·대외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전망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바, 통일정책 개발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해 주기 바람.

'95. 12.

통 일 정 책 실

## < 목 차 >

1. 아파트헤이트제도 변화과정
  2. 선 거
  3. 화 합 정 부
  4. 중앙집권주의와 지방분권주의
  5. 경 제
  6. 외 교 정 책
  7. 군 대 통 합
-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개황

## 1. 아파르트헤이트제도 변화과정

### 가. 정치협상의 시작

○ F.W.de Klerk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90.2)

- 정당활동 금지 해제
- 아파르트헤이트제도 종식
- 정치협상 시작

○ Nelson Mandela 석방('90.2)

○ 공식적 정치협상은 CODESA(Convention for a Democratic South Africa, 민주 남아공을 위한 회의)에서 시작('91.12)

- 국민당(National Party),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인카타자유당(Inkatha Freedom-Party) 등 18개 정파 참여했으나 NP, ANC, IFP가 중심이 됨

· 극단주의자(백인: 아파르트헤이트제도 유지파, 흑인: 화해 거부파)를 협상에 끌어들이는데 어려움 노정

- 4개 흑인거주지역(Trankei, Ciskei, Bophuthaswana, Venda)이 소수정파인 IFP로 합류

○ 92년 5월 IFP의 협상탈퇴로 인해 NP와 ANC가 주 협상정파로 잔류

## 나. 정치협상 가능원인

- 흑·백 양측이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짐.

그러나, 초기 흑·백 양측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 또는 그 결과를 어떻게 각각의 지지자들에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함.

- De Klerk는 실용적 이유때문에 협상을 시작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제도가 인권문제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

National Party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NP지지자들에게 설득

- NP가 협상을 시작하게 된 요인

- ① '86년이후 흑인 도시지역 소요확대와 MK (ANC의 무장단체)의 국내침투 강화
- ② 국내외적 압력으로 야기된 경기침체의 정치적 변화에 의한 재건 모색
- ③ De Klerk 정권은 공산주의 붕괴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ANC가 협상에 참여하리라고 확신

- ANC 지도자들은 폭력이나 대중선동만으로는 백인정권을 타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 ANC는 국내외적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백인정권의 계속적인 공세로 남아프리카지역에서 세력후퇴
- 결국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지만 그 결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황폐화만 가져올 것임을 ANC지지자들에게 설득

#### 다. 정치협상 과정상의 갈등 표출

- 초기협상은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강경자세 때문에 난관에 봉착
  - 안정속의 변화
  - 기존체제내에서의 새로운 건설 모색
  - 현체제의 포기가 아닌 타협에 의한 권력 공유
  - 각 정파에 일정한 권리부여 주장
- ANC의 협상 기본원칙
  - 안정보다는 변화 강조
  - 각 정파에 일정한 권리부여 반대와 다수결 원칙 지지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에서의 신헌법 제정
- NP와 ANC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협상과 투쟁이 병행됨.

- ANC와 NP간 갈등 뿐만 아니라 ANC·NP내부의 강온파간 갈등도 협상을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음.

#### NP내 갈등

- 우익보수당(Conservative Party)의 보궐선거 승리
- 정부내 대혁신 강경조치 주장 대두
- NP내 일부 우익의 NP탈당 위협

#### ANC내 갈등

- 해외망명귀환자 및 남아프리카의회(Pan Africanist Congress) 등 강경파들의 무장투쟁 주장 고조
- ANC는 좌파의 공세에 밀려 무장투쟁의 포기보다는 무장투쟁의 중지를 선언하고 백인정권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계속적인 대남아공 제재를 국제사회에 호소

- 협상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ODESA 회의는 1992년 6월까지 계속됨.

합의사항 : 1국가체제, 동등한 시민권, 인종·피부색·성·이념의 평등, 사법권 독립, 다당제 민주주의, 권력분립, 권리장전, 비례대표제 선거, 선거에 의해 수립된 국회에서의 헌법제정 등

## 라. 협상의 결렬

- 협상결렬 원인

① 임시정부의 필요성, 보안군의 통제, 연방주의에 대한 정파간 견해 차이

② 신헌법 제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NP와 ANC간 견해 차이

- NP는 75%이상 찬성 주장(후에 권리장전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70% 이상으로 후퇴)

- ANC는 66.6%이상 찬성 주장(후에 권리장전을 75%이상, 나머지는 70% 이상으로 후퇴)

※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 개정 정족수에 관해 심한 견해차이 표출

③ 계속된 폭력사태 원인에 대한 상호 불신

- Boipatong에서의 ANC 지지자 39명이 살해됨에 따라 CODESA협상 결렬(1992.6.17)

- ANC와 백인정권간 폭력사태 재연

④ 협상참여를 거부한 일부 흑·백집단의 반발

- 자유연맹(Freedom Alliance) 결성

· 우익 백인집단과 Kwazulu, Ciskei, Bophuthatswana의 일부 흑인집단들로 구성

- 자유연맹 참여 흑인들은 연방제나 국가연합제를 통한 지방자치정부 권한의 확대 주장

- 우익 백인들은 분리된 백인 자치국가 건설을 주장



- 자유동맹은 ANC와 공산주의자에 의해 지배되는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감 표출
- o 1984년부터 1993년 사이 19,000여명의 인명이 정치적 폭력으로 피살

특히 협상이 시작된 1990-1993년간 정치적 폭력에 의한 인명피해 급증

#### 마. 협상의 재개 및 합의도출

- o 계속된 폭력사태 발발은 ANC와 백인정권으로 하여금 협상을 재개토록 하는 압력요소로 작용

백인정권은 폭력사태 악화와 ANC의 선동활동이 격화되자 협상을 재개하는 외에는 사태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식

ANC는 압력수단으로 대중선동을 강화하였지만, 이러한 선동이 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인정권과 협상에 임해야 했음.

- o 1993. 4월 협상 재개

재협상 초기에는 CODESA에의 참가를 거부하였던 보수당(CP), 인카타자유당(IFP), 범아프리카회의(PAC)가 참여하였으나, 1993. 5월 협상과정에서 탈퇴

재협상에서는 CODESA에서의 협상과는 달리 모든 현안사항이 전체회의에 제기되기전에 ANC와 NP 양자간 협상에서 사전 결정되었으며, 이에따른 소수정파의 불만야기

- 즉 ANC와 NP간 협상결과가 그대로 채택되는 선에서 합의 도출

o 소수정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4. 4월 이전 국회총선거 실시 합의

o 1993.11월까지 임시헌법의 원칙, 최종헌법의 기본원칙 등에 합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

- 국회의원 정수 : 490명, 비례대표제 채택

· 하원 : 400명(전국 정당과 주단위 당에서 각 200명씩)

· 상원: 90명(각주에서 10명)

· 기능: 최종헌법 제정, 일반법 제정

※ ANC는 국회에서 최종 헌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성과를 거둠.

- 지방정부: 행정조직과 경찰력을 가진 9개 지방정부로 구성

※ 그러나 지방정부가 연방주의 권력구조로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해결상태

- 임시정부

· 국민통합 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에 의한 권력공유

· 선거에서 획득한 투표수에 비례하여 구성  
(득표수 5%마다 1개 각료직 배당)

- 최종헌법의 기초가 될 34개의 헌법원칙에 합의

· 국가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의 지위

·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 다당제 선거 보장

· 개인의 기본권 보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기준 설정

○ 협상참여 각 정파는 협상결과에 대체로 만족

## 2. 선 거

### 가. 합의이후 상황

○ 임시집행기구 설치

임시집행위원회(Transitional Executive Council): 분야별 위원회를 통한 정부기관 업무의 통제

- 독립선거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

○ 두개의 독립 흑인지역 지방정부(Ciskei, Bophuthatswana)의 붕괴로 흑인중 협상거부론자의 입지 약화

○ 우익 백인진영도 Constand Viljoen장군이 보수당(CP)을 탈퇴한데 이어 자유전선(FF)을 결성, 선거에 참여키로 결정함으로써 분열

○ 협상거부론자의 입지약화에도 불구하고 인카타자유당 문제는 남아있었으나 결국 선거참여 결정

인카타자유당의 Buthelezi는 선거거부

ANC는 인카타자유당의 세력기반지역인 Kwazulu주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가중

- 인카타자유당은 선거불참시 Buthelezi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우려하여 선거에 참가키로 최종결정

나. 선거(1994.4.27)

o 전체 유권자중 87%가 투표에 참가

- ANC : 63%, 9개 지방중 7개 지방에서 다수당
- NP : 20%, 1개 지방에서 다수당
- IFP : 10.5%, 1개 지방에서 다수당

o ANC는 최종헌법 제정에 필요한 2/3의석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선거결과에 만족

※ 선거결과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ANC	62.62	252
NP	20.39	82
IFP	10.54	43
FF	2.17	9
DP	1.73	7
PAC	1.25	5
ACDP	6.45	2
계	100	400

DP : 민주당(Democratic Party)

ACDP : 아프리카 기독교민주당(The African Christian Democratic Party)

FF : 자유전선(Freedom Front)

## 다. 화 해

### ○ 대통령으로서 Mandela는 화해와 국가건설을 강조

정치범 사면

정부내 정파간 권력 공유

보안군중 일부만 범죄자로 단죄

### ○ 국민화합정부의 성격규정 논란

NP는 국민화합정부를 계속적인 정부형태로, ANC는 임시형태로 간주

NP는 남아공같은 다인종 혼합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수의 우위에 기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ANC는 국민화합정부를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상에 있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임시집행기구라고 주장

### ○ 남아공 사회의 성격

남아공 사회는 다양한 인종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있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하에서의 대흑인 억압정책을 제외하면 상당한 정도의 자유주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음.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정파는 인종문제를 최대한 이용하는 선거전략을 구사하였음.

⇒ 이는 선거후에도 계속되는 인종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 인종 및 종족문제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및 불타협 정서가 사회내에 뿌리깊게 박혀있음.

- NP와 ANC의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안에 대한 회의적 평가  
고조

- NP와 ANC간 합의는 각 정파간 투쟁의 산물일 뿐이며, 결국 남아공 정국은 아파트헤이트 체제하의 권위주의에 회귀할 것이라는 비관론 대두

○ 과거의 불타협적 태도 및 권위주의는 가장 큰 정치적 위협요소가 되었음.

- 만델라나 De Klerk 같은 지도자들은 타협과 양보를 보여 주었지만, 고위지도층과 대중에게는 강경파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음.

- 화합정부 수립이후 정부의 평화호소에도 불구하고 동족간 분쟁뿐 아니라 범죄행위, 폭력 등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

· 1993년에는 260명의 경찰관이 피살되었으며, 1994년에는 한달평균 20명이상이 피살되었음.

○ 남아공에서의 화해정신은 정치지도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 무장세력의 폭력사용 절제 등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수적임.

- 새로운 정치문화는 법과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가 수반되어야 함.

- 제헌의회는 최종헌법 제정시 정치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함.
- 그러나 혁명적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헌법적 제한과 법적 테두리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려움.
  - 예를들어 Mandela조차 Derek Keys가 재정장관을 사임했을 때 장관은 국회의원이어야만 한다는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Chris Liebenberg를 재정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관련 조항과 각료수 증가 조항을 수정
- 향후 최종헌법 채택시 예상되는 각종 헌법해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판단기준을 가진 독립헌법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임.

### 3. 화합정부

#### 가. 화합정부의 구성

- 임시헌법은 다양한 정파와 인종 출신의 정치인을 각료에 임명토록 하였음.
- 그러나 다양한 정파로 구성된 정부를 어떻게 하나의 정치·행정체도로 만드느냐 하는 어려움이 대두되었음.
  - 변화과정상 정부운영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정부내의 불안정과 비효율성을 야기시켰음.

○ 임시헌법에 의한 정부구성

- 대통령(국회에서 선출): Nelson Mandela
- 부통령(20%의 득표율 기록 정당이 지명)
  - Thabo Mbeki(ANC)
  - De Klerk(NP)
  
- 각료(정당이 획득한 5% 득표율마다 1명씩 임명, 27명)
  - ANC 18명
  - NP 6명
  - IFP 3명
  
- ※ Liebenberg가 재정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현재는 28명의 각료
  
- 차관은 대통령이 각 정당지도자와 협의하에 임명

○ Mandela는 국방·안보분야는 ANC 출신으로 임명

- 국방장관 : Joe Modise, Ronnie Kasrils
- 안전·보안장관 : Sydney Mufamadi, Joe Mattews
- 재정장관 : 균형경제정책 추구를 위해 경제계 인사 등용 (전임 Derek Keys, 현직 Chris Liebenleng)

※ Mandela는 경제분야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차관은 ANC 출신으로 임명

- 국가재건·개발 프로그램 책임자 : Jay Naidoo(ANC)



## 나. 정치지도자

### o Mandela

향후 남아공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지도력이 요구됨을 감안하면, Mandela는 남아공을 자유주의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보수주의적 제동장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임.

### o De Klerk

부통령으로서 De Klerk는 백인, 혼혈, 아시아인에 의한 지지와 풍부한 정치적 경험으로 향후 남아공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De Klerk와 Mandela가 계속 협력해 나간다면 향후 남아공 정부의 기반이 공고하게 수립될 것임.

### o Thabo Mbeki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해외망명, 귀국후 ANC의 국제부장이 된 그는 행정경험은 없지만 정부를 하나로 묶는 역할 수행

### o Mangosuthu Buthelezi

IFP지도자이자 내무성장관인 Buthelezi는 Kwazulu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

## 다. 정당과 화합정부

### ○ ANC

- ANC는 주로 흑인의 권리신장을 위해 결성되었으나, 대외적으로는 1955년 자유헌장(Freedom Charter)을 통해 “남아공은 그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속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비인종주의를 표방

### ○ NP

- 과거에는 극단적 Africaner 민족주의에 의거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1990년후 급격한 변화를 겪는 과정에 있음.

### ○ IFP

-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를 반대해왔지만, ANC와는 달리 체제내 변화를 추구

### ○ 정당제도는 선거제도나 정당법에 의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를 갖춤

- 선거제도는 개별유권자에 의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제
- 국회의원직 사직없이 소속정당을 바꿀 수 없음.
- 내각은 연방제도 채택이나 경제정책에 관해 심한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별정책 사항과 장관에 따라 정책집행에 있어서 혼란상 노출

- 예를들어 연방제도 채택과 시장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NP와 IFP가 연합하여 반ANC 공세를 펼치고 있음.

o 정당내 갈등

- 모든 정당이 당내 지지기반이 상이하지만, 특히 ANC내에는 다양한 이념·조직을 가진 파벌이 상존
  -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급진파, 중도파, 전통주의자, 개혁주의자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조직면에서는 당주류와 비주류인 남아공 노동조합회의가 있음.
  - 경험면에서도 해외망명파, 국내투쟁파, 게릴라 출신, 정치투쟁 출신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혼재되어 있음.
- 해방운동으로서의 ANC는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를 타파하는 공통목적을 통해 단결해 왔지만, 현재는 집권세력으로서 각 파벌이 상이한 정책방향을 추구하고 있음.
  - Mandela의 부인이었던 Winnie Mandela는 ANC지도부가 대중의 요구와 곤경을 묵과한 채, NP와 야합하고 있다고 현 ANC지도부를 맹비난

o 화합정부 출범후 ANC의 기능

- Cyril Ramaphosa ANC 사무총장은 부통령직 획득에 실패하자 각료직 수락을 거부하면서 ANC내에 남아 당체제를 개혁하면서 차기대권 확보를 위한 정치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ANC지도층이 정부로 옮겨가면서 당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 있음.

#### ○ ANC와 정부와의 갈등

- ANC는 원외당, 국회의원, 각료의 3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구성원이 정부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
  - 원외당 인사는 정책목표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각료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일부 급진론자들은 당과 정부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있음.
  - ANC는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 정부와 상당한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독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정부내 다른 2개정당도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상당한 당내 도전을 받고 있음.

- 정부내 소수파로서 NP와 IFP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단순한 ANC의 하수인의 지위를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 NP의 노선 갈등

- NP는 선거에서 소수인종인 백인 대표당으로 전략하였으나, 향후 소수인종 대표당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1999년 집권을 위해서는 흑인의 이익에도 부응할 조직, 정책, 이미지상의 변화를 시도해야 함.

- 일부 국회의원은 현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고 국회내에서 순수야당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De Klerk를 비롯한 NP지도층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 현재는 연립정부내의 협력자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내에서의 야당이라는 상충되는 입장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명확한 정책 진로를 세워야 할 것임.

#### ○ ANC와 IFP의 갈등

정당으로서 IFP는 별다른 당내 이념갈등은 없으나, IFP지도자는 선거와 연립정부에의 참여 명분을 지지자들에게 정당화하는 문제에 봉착

- ANC와 IFP는 연립정부내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음.

- IFP는 연립정부 참여를 통해서만 당의 목적(Zulu족 특유의 전통 유지)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참여했지만, ANC와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목적달성이 불투명한 상태

- 남아공 역사에 있어서 다수흑인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과거부터 계속된 ANC와 IFP 사이의 반목과 불신은 향후 남아공 정국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 화합정부내 부처할거주의

- 화합정부 구성의 크기와 다양성은 심각한 부처할거주의를 초래
- 이는 정책추진의 비효율성, 상반된 정책추진, 부서간 협력 부재, 개인적 친소관계에 의한 정책 추진 등 갈등노출
- 그러나 부처할거주의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할 경우 해당부처의 정책이 정부내 합의된 정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됨.
- 부처간 경쟁은 가용재원에 대한 경쟁양태로 나타남.
  - 예를들어 ANC의 무장단체인 MK를 이끌었던 국방장관 Joe Modise는 이제는 오히려 오랜 투쟁대상이었던 정부군을 위한 예산획득 경쟁에 나서야 했음.
  - Modise는 방위비 증액지지를 호소했지만, 다른 각료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 Jay Naidoo, Trevor Mannel과 같은 ANC출신 각료들은 심지어 군비를 삭감하여 개발정책 추진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화합정부내 부패문제

- Mandela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내에 부패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봉급지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 그러나 Mandela는 국회의원과 각료에 대한 높은 봉급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각료에

대한 봉급은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정되고 있다고 반박

#### 다. 공무원과 경찰

○ 정치지도자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부내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

· 선거시 구선거기구가 폐지되고 독립선거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가 선거사무를 맡았음.

· 독립선거위원회가 비정치적인 원로, 외국의 전문가와 범인종적으로 구성되었지만 경험부족으로 선거시에 많은 문제점 노출

· 남아공의 선거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은 좋은 목적과 정치적 공정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행정경험과 효율성이 요구됨.

○ 신남아공의 행정체제

· 현재 남아공은 행정체제의 무능력, 경쟁력 부족, 내적분열, 조직과잉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 노출상태

새로운 행정제도는 모든 인종,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고 모든 조직은 신정부에 봉사하도록 개편되어야 했음.

· 새로운 지방정부의 탄생에 따른 지방차원의 행정제도의 변화도 요구되었음.

- 정치지도자는 관료제도의 열성과 충성심을 이끌어 내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정책들은 정책수행 능력과 결단력을 요구함.

#### ○ 행정체제의 문제점

- 행정체제의 변화는 구 흑인거주지역의 공무원 사이에 동요를 야기시켰음.
  - 1994년초 Bophunatswana, Transkei, Venda, Ciskei 공무원의 시위와 파업 발생
  - 시위 공무원은 중앙공무원과의 동등한 대우보장, 연금보장 등을 요구하였지만 실제로는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었음.
- ANC에 의해 통치되는 지방정부도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동요를 막을 수 없었음.
  - 신정부 수립이전 Mangope의 Bophuaknatswana 정부에 대해 시위를 벌였던 공무원들은 ANC가 Bophunatswana에서 집권하자 똑같은 요구조건을 걸고 시위와 파업을 일으켰음.
- 이러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장애에 대한 불확실은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신분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수립이후 발생한 파벌주의, 관료주의 팽배, 비능률적 업무추진 등도 원인이 되었음.
- 신정부 수립이후 조직팽창은 상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음.



- ① 관료조직 구성상 인종비율의 평준화 필요성
- ② 아파트헤이트제도 투쟁인사에 대한 보상
- ③ 신정책 추진을 위한 신규인원 충원
- ④ 실업률 감소 목적
  - 공공서비스장관인 Zola Skweyiya가 11,000명의 새로운 공무원 자리를 신규 흑인출신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였을 때와 ANC출신 장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자들로 구 관료조직을 대체코자 했을 때, 기존 관료조직들이 강력히 반발

○ 경찰조직의 개편

· 기존 경찰조직

- 중앙경찰조직 : 114,000명
- 지방경찰조직 : 19,000명
- ※ 대부분의 고위직은 백인들로 구성

기존 경찰조직의 행위에 대해 심한 불신감을 갖고있던 Mandela는 경찰조직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변화를 지시

ANC는 경찰의 임무가 범법자를 체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공공질서의 유지도 큰 임무라는 점을 인식, 강력한 중당집권적 경찰조직의 필요성을 주장

○ 선거이후 경찰조직 개편방향

· 선거이후 경찰조직 개편방향을 비교적 점진적으로 추진

- ① 계속되는 범죄율과 폭력증가, 집무수행중인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 증가의 심각성 인식

- ② 처음부터 모든 경찰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비공식적 경찰조직만 해체)

○ 향후 경찰조직 개편방향 및 문제점

- 경찰내부의 폭력문화 철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 필요
  - 고위직 경찰간부를 교체하여 변화를 도입하면서도 사기를 진작해야 하는 상황의 이중성
- 경찰력의 개편은 경찰내부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도 경찰과 법에 대한 존경과 순응을 보여줘야 함.

#### 4. 중앙집권주의와 지방분권주의

##### 가. 국가건설

○ ANC의 입장

- ANC는 남아공의 강력한 국가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국가적 동질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동시에 ANC는 자유헌장(Freedom Charter)을 통해 모든 집단과 인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동일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남아공의 인종적, 종족적 다양성을 인정

그러나 ANC는 헌법제정지침(1988)에서 국가동질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남아공 국민을 단합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양성을 국가적 동질성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였음.

- ANC의 선거전략 지침에서는 다양한 문화, 신념, 언어를 동질성 추구의 원천으로 규정함으로써 ANC의 헌법제정 원칙을 선거전략에서도 명시

#### o NP의 입장

NP는 Africaner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권력을 잡았으나, '60년대이후 단일 백인국가 건설에 모든 백인들의 동참을 호소함으로써 점증하는 국내외적 압력에 대응

- 더 나아가 당시 수상이었던 Hendrik Verwoed는 인종별 거주지에 기초하여 분리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건설 추진
- 그는 남아공을 어떠한 단일민족도 다수가 될 수 없는 다민족국가로 간주하였으며, 남아공을 종족별 국가로 세분화함으로써 결국 전체 남아공을 백인지배하에 두려는 정책을 추진

그러나 백인정권의 종족별 국가 세분화 정책은 흑인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분리된 흑인거주 국가의 불인정으로 성사되지 못함.

결국 De Klerk의 새롭고 민주적인 국가 건설 표방에 따라 백인정권의 남아공 분리정책은 완전 실패

- 현재 NP는 남아공의 단일국가성과 함께 단일국가성내의 다양성을 주장
  - NP자체는 전국적 정당으로 주장하지만, 결국 소수인종인 백인들을 지지세력으로 가진 군소정당으로 전략
- NP는 임시헌법의 권력공유 조항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정도 희석시킬 수 있었으며, 달성될 수 없는 백인국가(Volkstaat) 건설보다 새로운 헌법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익 백인정파의 입장

- NP자체가 백인국가 건설 정책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자, NP내부의 반발 초래
- 1982년 일부 인사들이 NP를 탈당한데 이어,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을 결성하게 됨에 따라 가장 큰 분열이 이루어짐.
- 보수당과 여타 백인우익 정파들은 분리된 백인국가 건설을 주장하면서, 남아공과 같이 인종적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진 사회에서 강력한 단일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주장
- 그러나 우익 백인정파도 방법과 목표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노출
  - 일부는 총선에 참여하였지만, 일부는 총선참가를 거부
    - ※ 일부 극우세력(AWB)은 백인국가 건설을 위해 폭력사용 주장

- 아직까지 일부 우익세력은 남아공 전체를 백인지배하에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우익세력은 이러한 환상을 버리고 백인만의 독립국가 건설계획을 추진
- Constand Viljoen이 이끄는 자유전선(Freedom Front)은 선거를 통해 Afrikaner의 인종적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백인자치 정부의 수립을 주장

#### o IFP의 입장

- IFP는 우익 백인정파의 인종별 독자성에 대한 주장에 공감
  - IFP는 최대종족인 Zulu족이 제2종족인 Xhosa족의 Mandela가 이끄는 ANC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Buthelezi가 이끄는 IFP는 Zulu족의 동질성과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
- Buthelezi는 헌법협상을 통해 Zulu주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이를 Kwazulu를 남아공으로부터 말살시키려는 ANC의 책략으로 간주

#### o 전망

- 남아공의 단일국가성에 대한 장래는 매우 불투명함.
- Zulu족과 우익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거나 여타 소수종족이 자신의 국가수립 권리를 주장한다면 남아공은 여러개의 국가연합체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음.

- 그러나 남아공의 장래는 경제·교육·스포츠 등 여러가지 매개변수들의 영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특히 현 화합정부의 정치·경제적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임.

## 나. 연방제도와 주정부

### ○ 연방제도에 관한 논쟁

- 국가제도에 관한 논란은 원칙의 문제만은 아니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내전으로 발전될 수도 있음.
- 대부분의 백인은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Zulu족은 중앙정부에 의해 소외될 경우 다시 폭력으로 대항할 가능성 상존
- 연방제도는 헌법상 중앙정부와 주정부간에 형식적 권력분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부형태를 단일이나 연방이냐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부형태를 강력한 중앙집권제도와 강력한 연방제도를 가진 연속체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는 정태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각 정파의 입장

- ANC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강력한 단일국가 형성을 통해 국가동질성을 강화시키기를 희망

- IFP와 우익 백인은 약한 중앙정부와 강력한 주정부 수립을 통해 남아공내의 인종간 종족간 다양성을 강조
- NP는 양자의 중간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방제 도쪽에 가까운 정책을 표명하고 있음.

정부형태에 대한 결정이 남아공의 안정, 미래, 헌정구조, 정치행위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o 향후 전망

- 정부형태에 대한 논란은 협상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향후 의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의회나 헌법재판소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권력분배 문제에 관한 협상에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정부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협상에서 합의된 원칙의 불명확성 때문에 향후 다양한 해석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음.
- 예를들어 합의된 원칙 제22조는 중앙정부는 주정부의 지역적·기능적·제도적 완성체로서의 위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3조에서는 재판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입법기관간 분쟁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합의원칙 자체의 상충성은 이미 정파간에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도 발생

- De Klerk는 합의된 헌법원칙들이 주정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ANC의 Joe Slovo는 최종헌법의 제정은 ANC가 다수인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강력한 중앙정부가 채택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산권도 중앙정부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음.

○ 향후 각 정파의 대책

- ANC는 연방제도가 반동주의자의 분할을 통한 국가지배 기도라고 의심하면서, 백인정권 지배시 NP가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했다는 점을 상기
- ANC의 Kadar Asmal은 NP의 연방제도 주장을 아파르트헤이트의 대체기도로 비난하면서, 이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NP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정부에서 자원배분을 동결시켜 결국 중앙정부의 자원재배분 능력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기도라고 주장
- 동시에 ANC는 IFP와 우익 백인에게도 의심의 눈길을 주고 있음.
- 비록 IFP와 우익 백인간 동맹이 결렬되고, IFP가 흑인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데다 우익 백인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방제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 선거결과 IFP는 예상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동시에 Natal주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Kwazulu 지역을 지배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의 연방(또는 국가연합제) 제도 주장은 지역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1992년 Kwazulu 주의회는 Buthelezi에 의해 제안된 반 중앙정부적 내용의 주헌법을 통과시켰음.

- 우익 백인진영은 아직까지 분열된 상태임. 보수당은 선거에 불참함으로써 거의 소멸되었고, 극단조직인 AWB는 폭력선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지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주요 백인정파인 자유전선(FF)은 이스라엘 형태의 국가건설을 위해 강력한 연방제나 국가연합제를 지지하고 있음.
- ANC의 주장과 IFP, FF의 주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도창출 가능성 여부가 남아공 정국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요소가 될 것임.
- Kwazulu, Natal주를 캐나다의 퀘벡주와 같이 연방으로부터 특수취급을 받는 지방정부로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모든 정파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 o ANC는 선거에서 9개 주정부중 7개주에서 승리하였으나, 가장 큰 2개 주인 Kwazulu/Natal과 Western Cape에서 각각 IFP와 NP에서 패배하였음.

○ 이 결과 향후 남아공 정국을 불투명하게 하는 두가지 요소가 나타나게 됨.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력배분문제
- ②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수행능력

○ 심지어 ANC가 승리한 주정부에서도 권력과 자원배분에 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ANC 출신인물이 주수상인 주정부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큰 문제임.

- PWB주와 Orange Free State주의 ANC 주수상들은 그들이 집행할 더많은 자원과 권력·책임을 원하고 있음.
- PWB주의 Tokyo Sexwale 수상은 주택건설계획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미 중앙정부의 Slovo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
- Sexwale은 취임 첫째 150,000호의 주택건설 목표를 세웠으나 재원부족으로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만일 지방정부가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들은 ANC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IFP와 NP가 지배하고 있는 2개 주정부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Western Cape주의 NP와 Kwazulu/Natal의 IFP는 광범위한 독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IFP가 50%, ANC가 32%의 득표율을 기록한 Kwazulu / Natal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선거직후 ANC는 IFP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비난
- 주의회가 소집되자마자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주도(주정부 소재지)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대립 발생
  - IFP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Kwazulu 내륙지방에 있는 Ulundi를 주도로 주장한 반면, ANC는 IFP세력이 덜 미치는 Pietermaritzburg를 주도로 주장하였음.
- 주정부 내각 수립에도 각료직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어 심지어 ANC 각료들은 취임을 거부하였음.

다행스럽게도 IFP출신 주수상인 Frank Mdlalose의 제안에 따라 2년동안 주도 결정을 연기하고, 각료직을 재편, 경찰차관직을 신설하여 ANC에 배분함으로써 사태 해결

#### o 주정부내 갈등의 원인

- 주정부의 많은 문제들은 행정체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임.
  - 예를들어 구 Transvaal주는 4개의 주(PWV, Eastern Transvaal, Northern Transvaal, North West)로 나누어졌으며 ANC가 신설 4개주에서의 선거에 승리하였으나, 예산권은 구 Transvaal주에 있는 상태임.
  - 신설 4개주 주정부 공무원들의 지위는 애매한 상태임. 구 주정부 공무원들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장래지위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음.

- 즉,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정부 지도자들은 중앙공무원들의 인종간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리를 배분할 것이 예상된다.
-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장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 산 및 재산을 절취하고 있는 실정임.

####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 주정부와 유사한 조직문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부에도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주정부 문제보다는 논란이 덜 하지만 기초지자체 선거는 1995.10까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음.
- 기초지자체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정부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이며, 특히 기초지자체 정부가 취약하거나 붕괴된 흑인거주 지방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임.
-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흑인거주 도심지역에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게 한 것은 ANC의 고의적 의도 때문인 점을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ANC와 IFP간 갈등이 심한 지역도 대책마련이 시급함.
- 현재 효과적인 기초지자체 정부의 수립은 어려운 문제이며 새로운 조직,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 능력있는 공무원이 절실히 요구됨.
- Pietermaritzburg 지역이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음. 이 도시는 아직까지 흑·백간에 분리 통치되고 있고, ANC

와 IFP간 갈등이 심한 흑인거주지역으로 둘러싸여져 있음.

- 모든 주민들이 구체제가 하나의 기초지자체 정부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Pietermaritzburg시의 백인수는 160,000명에 불과하지만 향후 시정부는 각기 다른 사회·물질적 환경을 가진 500,000-600,000명에 이르는 흑인들이 시민에 포함될 것임.
- 시정부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
  - ① 시민에게 어떠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② 흑인지역에 대해서도 백인지역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③ 흑인지역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 ④ 중앙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가?

## 5. 경 제

### 가. 성장과 분배의 논란

- 경제문제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은 성장과 자원의 재분배 논쟁임.
- 선성장론은 남아공 경제회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① 가

능한 단시간내 성장 ② 남아공의 경제적 지위 강화 ③ 점진적 방법에 의한 부의 재분배 등을 주장하고 있음.

- 정부는 경제질서의 유지, 재산권 보호, 국제적 투자촉진, 시장신뢰 회복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함.

- 선성장론은 주로 백인기업가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음.

- 흑인사이에서 주장되고 있는 선분배론은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①아파트헤이트의 구습 제거, ②실업률 감축, ③ 공공서비스의 향상, ④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한 기술교육에의 투자, ⑤경제문제에 대한 국제적 간섭에 대처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정부각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성장론과 선분배론의 중간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찾고 있지만,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가열될 것으로 예상됨.

#### 나. 국가 재건 · 개발계획(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 RDP)

○ Mandela는 국가정책의 최우선을 국가재건 · 개발계획(RDP)에 두고 책임자로 Jay Naidoo를 임명

○ RDP의 기본원칙

-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조화
- 정의사회 구현
- 인간중심의 사회

- 국가통합

o RDP는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작성되었음.

- 초안은 사회주의적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안은 국유화나 마르크스주의적 색채를 대부분 삭제하였음.

o RDP는 세세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대신에 고용, 주택,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 5년간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경제개발에 있어서의 추정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목표

- ① 토지소유의 30% 재분배
- ② 공·사분야에서의 500,000개 고용창출
- ③ 2,500,000가정에 전기공급
- ④ 건강, 교육, 복지 증진

- 즉 성장촉진과 고용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o RDP는 정부 경제정책의 부수정책이라기 보다는 경제의 근간정책이며, 정부는 RDP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하였음.

o RDP는 야심찬 계획이긴 하지만 효율적 재정·경제정책과 공·사 부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임.

- 만델라는 국회연설을 통해 정부의 RDP 추진을 설명하면서 100일동안 6세이하의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 350,000 가정에의 전기공급 등을 목표로 제시

- 이를 위해 정부지출 삭감, RDP 예산의 확보, 국제사회로

부터의 지원 확보 등을 약속하였으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국내외적 지지를 받음.

○ RDP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 RDP 추진을 둘러싸고 ANC는 RDP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정부내 여타 정파들은 RDP를 현실성 없는 것으로 비판
- 특히 RDP에 소요되는 재원문제는 RDP의 장래에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음.
  - 선거운동 기간동안 ANC는 RDP 소요예산을 370억 Rand로 평가하였지만, NP는 7,000억 Rand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ANC는 정부수립이후 공식적 소요예산으로 800-900억 Rand가 소요될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Jay Naidoo는 RDP 소요재원을 예산증가보다는 예산조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언명
- RDP 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 정부의 100일 계획의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회의, 상충되는 이익집단간 갈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노동조합의 힘과시에 의한 노동분쟁에서 표출되었음.
  - 1994년 상반기는 1993년에 비해 파업에 의한 노동손실일이 2배로 증가
  - 노동분쟁에 대해 정부는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였지만 이는 노동조합을 더욱 격분시킴



- 아파르트헤이트시절 남아공에서는 비교적 원만한 노사관계 기록을 유지하였던 한 식품체인점에서의 파업은 신정부 출범이후 노사분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분쟁의 원인은 임금인상에 있었지만, 분쟁의 초점은 회사내 인종별 분업체제에 대한 흑인의 불만표출이었음.
  - 노사분규는 결국 경찰과 노동자간에 격렬한 폭력사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음.
- RDP의 문제점은 토지재분배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토지문제는 남아공에서 가장 분쟁이 심하고 감정적인 문제중의 하나임.
- 역대 백인정부는 전체토지의 13%만을 흑인에게 할당하는 등 억압적 법률을 통해 수백만의 흑인농민을 백인거주지로부터 추방하였음.
  - 신정부는 이처럼 불공평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토지위원회』와 『토지재판소』 설치를 통해 1913년부터의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복잡성

① 경작가능 토지의 범위

- 처음에는 정부소유 토지나 무소유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해결하려 하였으나, 향후 흑인농민의 재정착이 증가될 경우 백인소유 토지의 매입(많은 예산소요) 혹은 정부 지정 가격으로의 매입(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백인농장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서비스 공급

- 비록 토지가 분배된다 하더라도 수도, 도로, 판매망 등 공공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할 것이 예상되는 바(혹인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자본이 없음),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임.

### ③ 정착농민의 선발

- 재정착 농민들은 경작경험이 있는 농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농사에 경험이 없는 농민들이 선발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농업경제 실패의 부담이 정부에게 돌아올 것임.

### ④ 토지소유체제

- 과거 토지소유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토지의 재분배에 의한 소유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후 전통적인 공동경작 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경작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
- 토지분배 문제는 현재 많은 흑인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즉, 도시지역에서의 흑인 생활수준 향상이 농촌에의 흑인 재정착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재정착 문제보다는 도시지역 흑인 생활수준 향상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임.

#### 다. 국제경제적 요소

- 남아공은 국제무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과 외국인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
- ANC는 과거 백인정권이 이룩하려 하였던 서구, 북반구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남반구 경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정책을 추진
- 남아공 경제자체도 흑인거주 농촌지역과 도시빈민지역의 빈곤 및 백인중심의 발달된 대기업을 비교하면 한 경제체제안에서도 남북문제가 병존하고 있는 실정임.
-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준에 따르면 남아공은 Mexico, Brazil, 한국, 포르투갈, 그리스와 함께 중진국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남아공과 여타 중진국과의 경제지표 비교

1990년

구 분	인구 (백만)	GDP (US백만\$)	1인당GDP (US\$)	성장율(%) 1965-90평균
브라질	150.4	414,060	4,780	3.3
멕시코	86.2	237,750	5,980	2.8
말레이시아	9.8	42,400	5,900	4.0
태 국	55.8	80,170	4,610	4.4
그리스	10.1	57,900	7,340	2.8
터 키	56.1	96,500	5,020	2.6
나이지리아	115.5	34,760	1,420	0.1
남아공	35.9	90,720	5,500	1.3

< ※ Patric McGowan의 남아공 경제전망 >

○ 남아공 경제학자인 McGowan은 자국의 경제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

- 1965년-1990년까지 여타 중진국의 평균 GDP 성장율은 2.8%인 반면 남아공은 1.3%에 불과하며, 계속 성장율이 둔화되고 있음.

- 특히 1970년이후 남아공의 경제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1970~75 평균 성장율 : 4%
- 1990~94 평균 성장율 : 0.8%
- 1970~94 평균 인구성장율 : 4%

- McGowan이 진단한 남아공 경제성장 둔화 원인

- ① 아파트헤이트에 의한 인적자원 개발저해, 관료주의 팽배, 경제의 비능률성
- ② 1980년 20.5%에서 1990년 33%까지 증가한 GDP내 정부지출의 증대
- ③ 국제제재에 따른 무역장벽
- ④ 노동의 비효율적 운용에 따른 경영부실
- ⑤ 노동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상승율

- McGowan의 결론에 의하면 앞으로 남아공 경제는 중진국에서 탈락하여 후진국이 될 것임.

○ 그러나, 남아공 경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경제침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① 풍부한 광물자원

- ② 서구 기업문화와 영어에 능숙한 경험있는 산업계
- ③ 풍부한 관광자원
- ④ 낮은 대외부채와 높은 해외신용도
- 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완비
- ⑥ 일정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수준
- ⑦ 무역제재 해제에 따른 국제무역 증가
- ⑧ 국방예산 감소

○ 이러한 성장 잠재력이 정치혁명을 통해 구체화되고, 국내 질서가 안정된다면 남아공 경제는 실질적으로 성장 가능

- 남아공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의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요구됨.

○ 세계경제가 호전되는 가운데 신정부가 출범하는 행운과 아파르트헤이트제도 폐지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해외기업들의 국내투자 및 관광객의 증가 등은 남아공 경제에 대한 청신호라고 할 수 있음.

- 남아공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황에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세계경제의 호전은 국제무역의 성장과 다변화를 가져올 것인 바, 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임.

○ 시장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경제는 서구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 남아공의 상위 10대 교역국은 모두 서구 선진국이며, 특히 EU와의 교역이 높음.

○ 남아공이 북반부 경제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남반구 경제에

속할 것인가는 남아공 자신의 노력 뿐 아니라 국제경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남아공의 주요교역국 및 교역금액(1990/1991)

(단위: US백만\$)

구 분	수 입		수 출	
	1990	1991	1990	1991
E U	6,099	7,494	7,119	7,185
미 국	1,821	1,618	2,077	2,113
일 본	1,639	1,666	1,613	1,639

## 라. 국제원조 및 투자

### ○ 국제원조 및 투자형태

- ① 정부와 국제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과 차관
- ② 상호수용가능 조건에 따른 세계은행과 IMF로부터의 차관
- ③ 개별회사로부터의 투자

### ○ 정부는 3가지 형태의 원조나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주요 투자원은 서구가 될 것임.

- 이러한 점을 인식한 Mandela 대통령은 선거직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율 인하를 세계각국과 세계은행, IMF 관계자들에게 역설하였음.
- 노동부장관인 Tito Mboweni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신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보수주의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언급
- 투자만이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특히 개인부문에 있어서의 남아공 경제에 대한 신뢰만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즉 투자의 증가는 성장이라는 인식에 신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자들은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ANC내에서는 성장론을 거부하고 남아공의 대 서구 접촉 증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음.

· 남아공은 약탈적인 국제자본과 IMF, 세계은행,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들은 국제기구들이 제3세계를 재식민지화 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매관자본을 이식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연금·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억압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한 경제재편을 주장하면서 성장론에 적극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은 과거 동구제국의 원조를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서구 제국주의를 견제할 세력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음.

· IMF와 같은 기구들은 기본적인 사회변혁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경제개발 이론을 제3세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 서구로부터의 반응

· 몇몇 국가들과 기업들은 남아공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낙관하면서 남아공을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음.

※ 미국해외정보국(US Information Agency)이 남아공 기업 세미나를 개최(1994.6.1)하였을 때 Gore 부통령 등 미국 저명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그결과 미·남아공 기업간

## 발전위원회가 창설됨.(US-SA Business Development Committee)

-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연기하고 있으며, 기업가들은 남아공에서의 사태추이를 관망·분석하고 있음.
  - 그 이유로 ① 남아공 정치상황의 불확실, ② 남아공 정치인들의 의향이 경제계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 등을 들고 있음.
  - 특히 향후 남아공에서의 폭력사태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 독일은 미국과 같은 크기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는 사태를 관망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음.
- o 최대원조국인 영국은 70억 Rand를 제공하였으나, 이중 60억 Rand는 영국 수출업자에 대한 지불보증 형태임.
  - o 남아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지속적인 원조는 거의없는 실정이며, 사기업들도 남아공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음.

## 6. 외교정책

### 가. 신정부 출범에 대한 외국의 반응

- o Mandela 대통령의 취임식은 물론 총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존경과 찬사였음.



- 총선거 감시단으로 UN,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EU와 각국 정부대표, 비정부조직 대표들이 남아공 방문
  - 남아공의 여러 정파의 상호신뢰가 유지되었다면 국제감시단이 참관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결국 국제감시단이 선거를 감시한 것은 다행이었음.
  - 국제감시단이 선거의 자유성과 공정성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남아공은 극심한 선거후유증에 시달렸을 것임.
- 선거이후 남아공은 영연방(Common Wealth), OAU,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등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조직에서의 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음.
- 미국은 대남아공 원조를 2배이상 확대하고 미국기업이 남아공에 투자토록 촉구할 것이라고 약속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남아공 공식 방문을 통해 남아공이 르완다에서의 프랑스군 활동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면서,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남아공과 프랑스가 공동개입할 수 있는 『아프리카 신속개입 다국적군』(African Rapid Action Multinational Force) 창설을 제의
  - 영국은 Michael Heseltine 재무장관의 남아공 방문을 통해 영국의 대남아공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발표

## 나. 대외정책

- 신정부 출범이전인 1993년말 ANC는 당내토론을 거쳐 신대

## 외정책의 대강을 발표

### ① 도덕성

- 남아공의 외교정책은 인권, 국제법 존중, 평화, 군축에 강조를 둘 것임.
- Mandela 대통령은 남아공의 대외정책은 인권이 국제관계에 있어 핵심이라는 신념에 기초를 둘 것이라고 언급
- ANC는 인권이란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
- 남아공은 어떠한 군사진영에도 가담치 않을 것이며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할 것임.

### ② 세계경제

- 냉전종식으로 세계에 평화가 올 것이나 세계경제는 낙관적이지 않으며 대외경제정책의 주 목표는 남북간 격차를 줄이는 것임
- 남아공은 남반부 경제의 일원으로서 남아공의 위치가 세계경제에서 소외되지 않는 점에 국가이익의 목표를 둠.
- 강력한 자유시장 무역제도에 의해 남아공이 소외될 수 있으며, 남아공이 다시한번 불공정한 세계경제체제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남아공은 해외투자를 환영하지만 제재기간 동안의 오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단번에 세계경제속에 편입되는 것은

어려움.

③ 남부 아프리카지역

- 남아공의 특수성을 질식시키고, 남부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을 노동공급처와 소비시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식민시대의 유산 때문이다.
  - 앞으로 남아공, 남부 아프리카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외부지배와 압력에도 저항할 것임.
  - 남부 아프리카지역의 재건은 남아공 주도가 아니라 지역내 상호협력과 존중의 정신으로 책임을 같이 하는 집단협력체제로 이룩되어야 할 것임.
  - 남아공은 남부 아프리카지역의 해방운동에 기여할 것이며 분쟁의 군사적 해결이나 헤게모니 추구를 거부하고, 지역내 경제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임.
- 이 문건은 ANC가 해방운동기구로부터 정권담당자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 한 국가가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실제 정치에 부수하는 국가이익, 책임감, 국내외적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
  - 해방운동에 대한 지원도 기존의 모든 외교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임.

- 이러한 대외정책의 현실주의는 대대만 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대만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대남아공 국제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로서 ANC가 강력히 비난한 바 있는 국가였음.
- 그러나 1994.10, 대만의 무역·투자대표단의 남아공 방문시 이를 성대히 영접하였음.
- 만델라의 해외순방에도 ANC의 실용주의 대외정책이 잘 나타나고 있음.
- 만델라는 석방이후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남아공 해방투쟁의 원조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야세르 아라파트, 카다피 등을 방문하여 상호연대를 재확인
- 그러나 취임이후에는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을 주로 방문함으로써 ANC의 대외정책의 방향선회를 반영

#### ○ 무기판매 문제

- 선거직전 Kadar Asmal(현 수리임업부장관)은 구정권의 제3세계에 대한 비밀무기 수출을 강력히 비난
- 남아공 자체방위를 위한 군수산업의 유지는 필요하지만 대외 무기판매의 기준으로서 구매국가의 도덕성을 우선하여야 하고 국회의 통제하에 판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그러나 선거이후 군수산업이 위축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해외판매를 두배로 증가시켰으며, Asmal의 주장은 정부내

소수의견에 불과함.

- 신정부는 군수산업을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 7. 군대통합

이 자료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남아공의 군부통합문제』중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95.8.21, 동아일보 게재)

- 국내외적인 예상과는 달리 남아공의 각 정파 군인들을 하나의 국방군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임.
- 전남아방위군(SADF)과 전게릴라조직들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MK(국가의 창), 범아프리카인회의(PAC), 그리고 소위 인종차별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홈랜드(흑인자치지역)들인 트란스케이, 보푸타초와나, 벤다, 시스케이의 4개 지방 자치정부의 군대가 현재 새로운 남아프리카 국가방위군(SANDF: South Africa National Defence Force)으로 개편되고 있음.
- 이러한 SANDF는 여러 정파의 게릴라 조직을 망라한 통합군 조직이나 SADF와 ANC의 MK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
- 만델라정권의 국방장관은 ANC게릴라 사령관인 J.Modise가 임명되었으며, 동 국방장관은 SANDF 사령관으로서 구

정권하의 SADF의 백인사령관을 유입시킴.

- 각 군은 지원제에 의한 직업군인으로 구성됨.

- 그러나 새로운 군대에 부적합하거나 통합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릴라 병사들이 많아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
- 특히 새로이 창설된 SANDF는 적정규모의 정예군이 되기 위해 군대감축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통합후 예상되는 약 12만 5천명중 3만 5천명 정도를 감축해야 함에 따라 수만명이 실직위기에 놓여 있음.

#### 가. 통합과정

- 지금까지 통합과정이 성공적으로 진척되어온 것은 다양한 군사집단의 지도부에 힘입은 바가 큼.
- 94년 4월 총선거가 있기전 몇달동안 각 정파 군사지도자들은 SANDF 결성을 위한 역사적 협상을 벌였음.
- 이 협상에서 각 세력은 94년 4월 28일까지 총괄적인 인원등록부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 여기에는 SADF의 상비군 9만5천명, ANC의 2만8천명, 전 홈랜드군들부터 1만1천명, PAC의 6천명을 합하여 총 14만 명이 포함되었으며, 이에따라 ANC와 PAC의 병사들은 1,500개 단위로 나뉘어 그들이 배속될 3개 집결지(후에 2개로 축소)에 등록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불행히도 이 작업은 그 이후 몇달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ANC와 PAC의 계렬라 3만4천명중 상당수가 집결지에 신고하지 않은데다 신고한 자마저 대부분이 연령·교육·건강 등의 문제로 통합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음.

## 나. 제대문제

- 통합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제대문제가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남아공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문제의 해결을 회피해 왔으나, 오히려 이 문제는 잠재적 폭발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음.
- SANDF는 제대를 원하는 병사들을 위해 자체내에 18개월간의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지만, 전망이 밝지 못함. 왜냐하면 실업률이 45%에 달하는 남아공의 현실에서 군인들의 제대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즉 제대대상자의 대부분은 흑인으로 구성된 ANC와 PAC의 전병사들이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임.
- 전 ANC사령관이었던 J.Modise 국방장관이 맞고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는 새로 창설된 SANDF가 군사상의 기술과 운영을 사실상 SADF의 지도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임.
- 더욱이 SANDF의 지휘통제부가 여전히 백인들인 SADF지휘부의 지배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ANC간부들은 SADF의 억압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투쟁에 수년간을 보낸 경력 인정과 특권을 요구하고 있음.

- 자신들을 억압하던 SADF 지휘부가 견재하여 기득권을 누리  
고 있는데 반해,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태의 반전에 불안해 하고 미래를 두  
려워하고 있으면서도 통합과정을 받아들이는 길 이외에 대안  
이 없어 제대를 기다리고 있음.
- 이에따라 현재로서는 당장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제대군인들이 취업전선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높  
은 범죄율과 폭력이 더 늘어날 것이며, 이에따라 외국인 투  
자와 외래관광객의 감소가 예상됨.
- 처음에는 흡수통합에 주저하던 많은 전게릴라지도자들이 이  
미 통합에 동참해 버리면서 남은 게릴라부대의 지도력 부재  
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전게릴라지도부와 통합에 응하지 않은 하위급 게릴  
라 장교들간의 분열도 심각해지고 있음.
- 통합과정의 성공은 인원감축과 잉여병력의 제대라는 난문제  
를 뒤로 미루어 놓음으로써 성공했지만, 그 문제는 오래 방  
치해둘 수도 없고 해결방법에 따라 ANC가 주도하는 몇몇  
주요 선거구에서 불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남아공의 방위정책은 군통합 이후에 닥쳐올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음. 남아공 군부는 근년들어 극적인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SANDF의 변용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기를 회복하고 방위정책을 재확립하며 군대를 민주적 모델  
의 틀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  
하다고 봄.



## 다. 각군 현황

### ① 육 군

- 군사 병력수는 11만명으로 육군이 군대의 주력을 이루고 있음.
- 조직은 크게 후방지원부대와 국경수비부대로 구분됨.
- 최신형 무기로 무장되어 전체 전력은 아프리카지역의 최강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② 공 군

- 병력수는 약 1만명이며 공군참모총장 아래 4개 부대로 구성
  - 항공조정부대, 훈련부대, 항공조종부대, 전략지원부대

### ③ 해 군

- 병력수는 약 5천명으로 부제독에 의해 총지휘됨.
- 사령부는 프리토리아에 있으며, 훈련 및 작전은 별도로 항구별 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짐.

### ④ 의무부대

- 3개 군병원이 있으며, 전군에 대한 의무지원 담당

##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개황

○ 남아공 일반개황

○ 남아공 역사

○ 정 치

## 남아공 일반개황

### 가. 일반개관

- 국 명 :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면 적 : 1,231,037km<sup>2</sup>(한반도의 약5.5배)
- 인 구 : 4,250만명(94)
  - 흑인(70.67%), 백인(15.78%), 혼혈인(10.42%), 아시아계(3.13%)
  - 주요 흑인 종족  
Zulu(800만), Xhosa(250만), North Sotho(344만), South Sotho(200만),  
Twana(140만), Shangaan-Tsongas(140만), Swazi(100만) 등
- 수 도
  - 행정수도 : Pretoria(108만명)
  - 입법수도 : Cape Town(221만명)
  - 사법수도 : Bloemfontein(34만명)
- 독립일 : 1910.5.31(전 영연방내 자치정부)
- 국경일 : 4.27(Constitution Day)
- 정부형태 : 내각 책임제 요소가 포함된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 : Nelson Rolihlahla Mandela(94.5 취임)
  - 외무장관 : Alfred Nzo
- 의 회 : 국가의회(National Assembly, 400명)  
상 원(Senate, 90명)
- 언 어 : 영어, 아프리카스등 11개를 공용어로 채택
- 종교 : 기독교(72%), 카톨릭(8%), 유대교, 회교, 힌두교 및 토착신앙
- 국민순생산(GDP) : 1,185.6억불(94)
- 1인당 GDP : 2,827불(94)
- 대외무역
  - 수출 : 245억불(94) (광물자원, 광물생산품, 비금속 및 동제품,  
화학제품, 식물성 생산품)
  - 수입 : 218억불(94) (기계류, 전기기기, 화학제품, 운송기기류,  
금속제품, 플라스틱)

- 환 율 : 1\$=3.65Rand(95.7)
- 국제기구가입 : UN, WTO, IMF, WHO, ILO, Commonwealth, OAU
- 주요산물 : 금, 바나눔, 알미늄, 티타늄, 다이아몬드, 우라늄, 망간, 플라티늄, 크롬, 석탄

## 나. 약 사

- 1488 포르투갈인 Bartholomeu Dias 희망봉 발견
- 1652 화란 동인도 회사 케이프지역 식민지화, 이주 시작
- 1795 제1차(1795-1803) 및 제2차(1806) 영국의 케이프 점령
- 1814 화란, 케이프 식민지 영국에 할양
- 1820 영국인 이주 시작
- 1834 영국정부 노예제도 폐지, 이에 반대하는 보어인들은 내륙으로 진출하여 오렌지 자유국(1852) 및 트란스바알 공화국(1854) 수립
- 1899 영국, 남아프리카 전쟁. 보어전쟁을 통하여 2개 공화국 합병, 절대 우위 확보
- 1910 영국의회, 남아프리카법 제정, 남아프리카 연방 독립
- 1948 국민당 정권출범, 인종차별정책(아파타이트) 제도화
- 1989 De Klerk 대통령 취임, 아파타이트 철폐조치 시작

## 다. 남아공 민주화 과정 및 정치일정

### 1) 인종차별정책 철폐

- 89.9 De Klerk 대통령 취임
- 90.2 아프리카 민족의회(ANC) 및 남아공 공산당(SACP) 합법화, ANC 지도자 Mandela 석방
- 90.6 비상사태 해제

- 91.6 인종차별 3대 악법폐지(거주지역법, 토지법, 주민등록법)
- 93.3 교육차별 관행 철폐

2) 정치협상

- 91.9 흑백간 평화협정체결(National Peace Accord)
- 91.12 제1차 민주 남아공 회의 개최  
(CODESA I : Convention for a Democratic South Africa)
  - 민주남아공 건설을 위한 신헌법 협상 추진
- 92.3 백인만의 국민투표
  - 민주개혁 계속 추진 여부, 집권당 압승
- 92.5 제2차 민주 남아공 회의 개최(CODESA II)
- 92.6 Boipatong 유혈사태 발생, 협상 중단
- 92.9 Mandela-De Klerk 협상재개 합의
- 93.2 Mandela-De Klerk 정치일정 합의
- 93.4.1 26개 정파 참여 협상, 민주화 일정 합의 실패
- 93.4.10 남아공 공산당 서기장 Chris Hani 피살
- 93.4.29 De Klerk 대통령, 인종차별정책 관련 사과
- 93.6.2 Mandela-De Klerk, 94.4.27 총선실시 원칙 합의
- 93.6.3 26개 정파 참여 협상위(Negotiation Council), 94.4.27 자유선거 실시 합의
- 93.7.2 26개 정파 참여 협상회의(Negotiation Forum) 94.4.27 자유선거 실시 합의 확정
- 93.7.26 20개 정파, 잠정 헌법안(남아공 1993년 헌법)에 관한 다당 정치협상 회의

3) 다당 정치협상회의(Negotiating Forum) (94.7.2) 내용

-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남아공 최초의 자유선거를 94.4.27 실시
- 선거 실시때까지 흑인에게도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과도기구 설치
- 제헌의회가 구성되어 신헌법을 제정할때까지 임시헌법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기초토록 위임.

- 4) 과도집행 위원회(Transitional Executive Council : TEC) 운영
- TEC는 총선 총괄 업무를 맡고, Technical Committee에서 TEC에 관한 법률안 작성
  - 공명, 자유선거를 위하여 독립된 선거관리 위원회 및 언론, 방송위원회 설립
- 5) 임시헌법(Interim Constitution : 남아공 1993년 헌법) 채택
- 제헌의회에서 신헌법을 제정할때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운영될 헌법
  - Technical Committee에서 기초, 93. 7. 26 협상위원회(Negotiating Forum)에 상정
    - 2단계 민주화 일정 추진
      - . 1단계 : 과도집행위 구성, 선거준비
      - . 2단계 : 총선에 의한 민주의회 구성, 동 의회에서 2년내에 최종 헌법 제정, 총선실시
    - 연방제적 요소 도입
      - . 강력한 지방정부 : 상당범위의 입법, 자치권 부여
      - . 중앙정부와 권력균형 유지
    - 상하 양원제 의회제도
      - . 상원(Senate) : 각지역 10명의 지역대표로 구성
      - . 하원(National Assembly) : 전국및 지역구 비례대표제 선출 의원 (총400명)으로 구성
    - 상하 양원합동으로 최종 헌법 제정
- 6) 남아공 총선(94. 4. 26-29)
- 의 의
    - 남아공 역사상 최초의 전인종 참여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 및 300여년간의 인종차별(Apartheid) 완전철폐

○ 정당별 득표 및 획득 의석(국가의회)

정당명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국민당(National Party)	인카타 자유당(Inkatha Freedom Party)	기 타
득표율	62.65%	20.39%	10.54%	6.42%
의석수 (총400석)	252석	82석	43석	23석

○ 내각 구성

- 제1부통령 : Thabo Mbeki ANC 전부의장
- 제2부통령 : De Klerk 전 대통령(국민당)
- 내각(27석)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분배되는 연립 내각(coalition)임.
- 현재 ANC 19명, 국민당 6명, 인카타 자유당 2명으로 구성

7) 주요정치일정

- 현 정부 임기 : 99.5월까지(임기 5년)
- 신헌법 채택
  - 국회 개회이후 2년내(96년까지) 의원 2/3 찬성에 의한 신헌법 제정
  - 국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헌법안을 국민 투표에 회부, 60%의 찬성으로 채택
  - 상기 방법으로의 신헌법 채택 실패시, 국회 해산후 새로 국회구성, 국회에서 1년내(97년까지) 다수결로 채택
- 지방선거 (주정부 이하 수준단위)
  - 95.11월 실시 예정

라. 국내 정세

1) 국내정치

- ANC의 독자 개헌추진 의석 확보 실패
- 내각 참여 3대 정당의 득표율이 93%(국가의회 377석)로 기타 정당 유명 무실화

- 국민당(National Party) 및 인카타 자유당(Inkatha Freedom Party)과 사안별로 전제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3대 정당(Big Three)간의 제한된 공조 체제
- 2) ANC 후계자 문제
- 제1부통령 Mbeki와 당에 잔류한 Ramaphosa 사무총장 등을 위시 3-4인간에 차기 대통령 후보자리를 두고 경쟁 예상
- 3) 군사정책
- ANC 출신의 게릴라 조직이 군주요기구 장악(J. Modise ANC 군사령관을 국방장관에 임명)
- 4) 경제정책
- 경제제진 발전계획(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lan)을 근간으로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 우선 정책 전개
  - 재무부 등 3개 주요 경제부처 장관에 국민당 출신 백인을 임명, 백인 기득권 세력 실득 및 향후 국가재건 방향 시사(경제정상화 우선)
  - 정국안정을 위해 최소 년 4-5% 경제성장 실현 부담(93년도 성장을 1%)
  -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 적극 추진 전망
  - 경제 성과 미비시, 흑인세력 이탈 가능성 농후
  - 신정부의 성과 미비 및 향후 ANC내 후계자 합의 도출 실패시, 정세불안정 발생 가능성
  - 과격한 국유화 정책 시행시 백인세력의 과격대응 우려, 극히 제한적 부의 재분배 정책 실시
- 5) 대외정책
- 실리외교 및 비동맹, 아프리카 우선의 외교정책으로 아프리카 역내 지도국으로 부상



- 만델라 대통령, 94. 6. 2-3 하라레 개최 GCA(Global Coalition for Africa) 회의 및 전선국가 회의 참석, 주도적 역할 수행
- 남아공 94. 6. 9-10간 World Economic Forum 주관 남아프리카 정상 회담을 케이프타운에 유치
- UN 등 각종 국제기구에 복귀
  - OAU, 비동맹, WHO, ILO, 영연방(Commonwealth)
  - 94. 10월 Mandela 대통령 UN 방문
- 95. 5 현재 185개국과 외교관계 수립 (81개 상주공관 설치)
- ANC 국제문제 담당인사가 대외관계 주요직책에 임명(부통령 : Mbeki  
국제부장, 외무장관 : Nzo 전사무총장, 외무차관 : P. Aziz 국제부부장)
- ※ 선진제국의 대남아공 정책
  - 남아공의 사회주의 노선 추구 방지 및 재건을 위해 경제원조
  -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남아공 시장의 개방 요구 예상.

## 마. 한. 남아공 양국관계

### 1) 정치관계

- 91. 8 Ferguson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 91. 11 De Villiers 경제 조정장관 방한
- 92. 3 Botha 외무장관 방한
- 92. 12. 1 한. 남아공 수교
- 93. 2. 12 주남아공 대사관 개설 요원 남아공 입국
- 93. 2. 14 최상덕 중동아국장 방문
- 93. 4. 28 Van Zyl 주한 남아공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 93. 8. 16 최상덕 주남아공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 93. 9 Schoeman 외무부 부장관 방한
- 93. 10 Shearar 외무부 수석 차관보 방한
- 93. 12 홍순영 외무차관 방문

- 94. 3. 남아공 TEC 외무분과 위원단 방한  
(Sigcau 공주, Wessel 인력장관 등)
- 94. 4. 남아공 UN 선거 감사단 파견
- 94. 5. 한완상 특사파견(대통령 취임식)
- 94. 9. Jordan 체신장관 방한(UPU 총회)
- 95. 2. Nzo 남아공 외무장관 방한
- 95. 7. Mandela 대통령 방한
- 95. 8. 한. 남아공 의원 친선협회 사절단 방문(단장 박명근 의원)

2) 경제관계

- 69. 2 KOTRA 요하네스버그 지사 설치
- 78. 6 " " 철수(이후 모든 진출상사 철수)
- 90. 4 민간차원에서 상품교역 활성화 조치
- 92. 1 경제제재 해제 조치
- 92. 6 KOTRA 요하네스버그 지사 재개설(9. 30 개관식)
- 92. 7 전정련 주관 민간경협 사절단 남아공 방문  
(단장 : 최종현 전정련 부회장)
- 93. 6 외무부 주관 민관혼합 경제사절단 남아공 방문(단장 : 김봉규  
외교안보연구원 아중동부장)
- 94. 3 남아공 상공회의소 사절단 방한
- 95. 5. 민관합동 무역. 투자조사단 방문(단장 : 박운서 통상차관)
- 95. 9. Eastern Cape 투자 유치단 방한

3) 교역현황(우리기준)

(단위 : 백만불)

연 도	91	92	93	94	95(1-6)	품 목
수 출	3	290	273	318	201	플라스틱, 전기, 원자로, 보일러기계, 인조섬유, 철강 철도의 차량, 고무
수 입	0.3	549	531	740	480	귀금속, 주화, 철강, 광물연료, 동계품, 알미늄 품

4) 아국기업, 교민 진출현황

- 대우(86.10), 쌍용(86.4), 삼성물산(91.10), 삼성전자(88.5),  
LG(88.7), 금호(92.1), 현대종합상사(92), D.K. Enterprise(92)
- 투자업체 : 7건, 6,486천불(허가액)
- 교 민 : 520여명

5) 협정체결 현황

- 94.7.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서명(만델라 대통령  
방한시)

6) 우리 정부의 대남아공 관계개선 조치 내용

가) 78년 이후 시행 대남아공 제재조치

- 요하네스버그 주재 KOTRA 지사, 상사 지사 철수
- 무역사절단 교류 금지
- 차관 및 투자금지
- 석유 및 전략물자 교역금지
- 스포츠 및 문화교류 금지
- 통상관계 억제

나) 제1차 인적교류제한 완화조치(90.4)

- 남아공 사전 입국 허가제 폐지
- 상용, 관광, 인도적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제한 완화  
(30일 이내 사증 공관장 재량 발급)

다) 제2차 인적교류 제한 완화 조치(91.11)

- 문화학술, 스포츠 분야에까지 인적교류 제한 완화 조치 확대  
사증기간도 90일로 확대 시행
- 관광 및 통과목적 아국방문 남아공인에 대한 15일 이내 무사증입국 허용
- ※ 남아공 정부는 90.4 이후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15일 이내 남아공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라) 경제제재 해제(92. 1. 10)

- KOTRA 및 기업의 남아공 지사, 현지 법인 설치 허용
-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투자 등 금융지원 허용
- 통상사절단 교환 허용
- 교역통계 대외발표 허용, 민간기업간 교류 허용 및 품목별 교역 제한 또는 교역총액 제한 해제

마) 석유공급 및 수송 제재해제(93. 12. 10)

- 석유 공급, 석유제품 수송, 석유산업투자 제한 조치 해제

바) 무기 및 군사물자 해제(94. 11. 29)

- 유엔 안보리 결의 919호(94. 5. 25)에 따라 제재 해제

바. 남아공, 북한 관계

- 상주 외교관계가 없음.
- 남아공은 한반도 문제 관련 각종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옴.

## 약 사

### 1. 백인 정착 이전

- 수렵 및 채취경제를 한 부쉬맨(Bushman)족과 가축사육을 하던 Khoi-Khoi (호텐토트)족이 오렌지강까지 진출, 17세기경까지 거주하고 있었음.
- 잠베지강과 탕가니카호수 및 말라위호수 주변에 주로 거주하던 Bantu족의 선조들은 철기 및 금속문화를 보유하고 3세기경 림포포강 이남으로 진출하여 18세기 후반까지 오렌지강 이북 및 칼라하리 동부지역 등을 포함한 남아전역에 퍼졌으며, 동부해안까지 진출함. AD 4세기 이전에 “산”종족(San People)이 보츠와나 및 남아지역에 수렵생활을 하며 정착하기 시작.

### 2. 백인 이주 시작

- 1488년 포르투갈의 Bartholomu Dias가 희망봉 발견.
- 1647년 네델란드 선박이 케이프에 정박.
- 1652년 네델란드 동인도회사는 자국선박의 보급기지 및 노예, 천연자원, 귀금속 등 상품취득을 위해 케이프타운에 정박소를 설립하였으며 이것이 최초의 백인거주로 기록.
- 1679년 동인도회사가 유럽이주민들에게 토지분배를 시작하면서, 이후 네델란드인과 독일인의 이주가 시작되고, 백인들의 정착농업생산이 시작되었으며, 네델란드인은 전매회사를 통해 Khoi-Khoi족 등과 교역을 시작, 기존 사회, 경제체제를 잠식하여 원주민들을 임금노동자 또는 노예로 전락시킴.

- 네델란드인들 및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백인들은 스스로를 보어(Boer)인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Cape Town 주변으로부터 내륙으로 이주.
- 18세기경부터 백인들은 유색인 차별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권이라 주장하고 인종간의 평등제기는 백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 18세기경 동부해안으로 진출한 보어인들과 Great Fish강 근처에서 동케이프지역으로 진출하던 반투족의 충돌이 시작되어 약 100년간의 분쟁끝에 19세기 후반 반투족은 백인에게 굴복.

### 3. 영국의 진출

- 영국은 1795-1803년간 케이프타운을 점령하였으나, 곧 네델란드령으로 다시 편입.
- 1806년 영국은 케이프타운을 다시 점령하였으며, 1814년 정식으로 영국령 케이프로 편입하고 1820년부터 이민을 시작하여 보어인을 내륙오지로 몰아 넣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인과 보어인간에 관계 악화.
- 1834년 영국정부가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보어인들은 오렌지강 이북으로 대이주(Great Trek)를 시작, 내륙으로 진출해간 보어인은 원주민을 정복하여 1852년 오렌지 자치국과 1854년 트란스바알공화국을 세움. 이 두 보어인공화국에서는 소수백인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기독교 문명의 우월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 토착인을 노예로 취급하여 백인과는 엄격한 차별대우를 하는 관습을 확립.
- 1899년 영국은 남아프리카(보어)전쟁을 일으켜 보어인의 두 공화국을 병합함으로써 20세기초 남아프리카에서 절대우위를 점하게 됨.

#### 4. 남아연방의 수립

- 1909. 9. 20 영국의회는 남아프리카법(South Africa Act)을 통과시켜 마침내 오렌지자유국, 트란스발공화국, Cape Province, Natal 등 4개주로 된 남아프리카연방을 수립하고 영연방 내의 자치정부라는 지위를 갖도록 하였음.
- 1910. 5. 31 영연방국가로 독립.
- 1912년 남아원주민민족회의(SANNC)가 창설되어 흑인들의 반정부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SANNC는 1923년에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 명칭 변경.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아프리카인의 백인사회는 자연히 보어계(백인인구의 60%)와 영국계로 갈라지고 양자는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되었으며, 남아프리카연방이 성립된 이후에도 영국계가 상공업, 금속업 등 경제계에 두각을 나타낸 반면, 아프리카너(Afrikaner)로 개칭한 화란계는 농촌을 기반으로 하여 정계의 실권을 장악하여 왔음.
- 1948년 국민당 정권의 발족이후 남아정부는 심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였고 국민당의 기반인 보어계와 영국계 백인과의 대립으로 반영정책을 추구해 왔음.
- 1953년 반투교육법 제정으로 흑인고등교육을 제한.
- 1960. 3. 21 샤프빌에서 통행증명서 휴대에 반대하는 흑인소요사태 발생, 67명 사망, 200여명 부상. 1976년 유엔총회는 동일을 기념하기 위해 3. 21을 “인종차별철폐 국제의 날”로 제정.

## 5.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족 이후

- 1958년 집권한 Verwoerd내각은 1960. 10. 5 백인만의 참여하에 공화제로 이행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근소한 차이로 이를 채택, 61. 3 영연방 수상 회의에서 정식으로 영연방 이탈을 선언하고 61. 5. 31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발족.
- 1960년 흑인민족주의단체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와 PAC(Pan Africanist Congress)를 불법화, 흑인저항운동에 대한 억압이 본격화.
- 1966년 Dr. Hendrik Verwoerd 수상 피살, B. J. Vorster가 수상직 승계.
- 1971년 Bantu Homeland 헌법안 발효로 1959년 Bantu 자치정부법 제정후 실시해 오던 흑인민족 분리정책 가속화.
- 1972년 유엔은 남아공 대사의 신임장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
- 1974. 4 포르투갈의 군사쿠데타 후 동국 식민지인 앙골라, 모잠비크, 상토메 프린시페를 독립시켜주려는 정책이 남부아프리카로 파급될 것을 우려, Vorster 내각은 흑인국가들과의 화합정책(Detente Diplomacy) 추진.
- 1975년 Vorster 수상은 로데지아 백인소수정권을 협상에 의해 종식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세계여론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미비아에 대한 남아공의 정책변경용의 표명.
- 1975. 8 SWAPO(South-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봉쇄 및 Cunene강 Dam보호를 구실로 앙골라내전에 개입하였으나 동개입으로 쿠바군의 개입을 정당화시킴.
- 1975년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독립으로 남부아프리카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 4. 남아연방의 수립

- 1909. 9. 20 영국의회는 남아프리카법(South Africa Act)을 통과시켜 마침내 오렌지자유국, 트란스발공화국, Cape Province, Natal 등 4개주로 된 남아프리카연방을 수립하고 영연방 내의 자치정부라는 지위를 갖도록 하였음.
- 1910. 5. 31 영연방국가로 독립.
- 1912년 남아원주민민족회의(SANNC)가 창설되어 흑인들의 반정부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SANNC는 1923년에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 명칭 변경.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아프리카인의 백인사회는 자연히 보어계(백인인구의 60%)와 영국계로 갈라지고 양자는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되었으며, 남아프리카연방이 성립된 이후에도 영국계가 상공업, 금속업 등 경제계에 두각을 나타낸 반면, 아프리카너(Afrikaner)로 개칭한 화란계는 농촌을 기반으로 하여 정계의 실권을 장악하여 왔음.
- 1948년 국민당 정권의 발족이후 남아정부는 심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였고 국민당의 기반인 보어계와 영국계 백인과의 대립으로 반영정책을 추구해 왔음.
- 1953년 반투교육법 제정으로 흑인고등교육을 제한.
- 1960. 3. 21 샤프빌에서 통행증명서 휴대에 반대하는 흑인소요사태 발생, 67명 사망, 200여명 부상. 1976년 유엔총회는 동일을 기념하기 위해 3. 21을 “인종차별철폐 국제의 날”로 제정.

## 5.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족 이후

- 1958년 집권한 Verwoerd내각은 1960. 10. 5 백인만의 참여하에 공화제로 이행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근소한 차이로 이를 채택, 61. 3 영연방 수상 회의에서 정식으로 영연방 이탈을 선언하고 61. 5. 31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발족.
- 1960년 흑인민족주의단체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와 PAC(Pan Africanist Congress)를 불법화, 흑인저항운동에 대한 억압이 본격화.
- 1966년 Dr. Hendrik Verwoerd 수상 피살, B. J. Vorster가 수상직 승계.
- 1971년 Bantu Homeland 헌법안 발효로 1959년 Bantu 자치정부법 제정후 실시해 오던 흑인민족 분리정책 가속화.
- 1972년 유엔은 남아공 대사의 신임장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
- 1974. 4 포르투갈의 군사쿠데타 후 동국 식민지인 앙골라, 모잠비크, 상토메 프린시페를 독립시켜주려는 정책이 남부아프리카로 파급될 것을 우려, Vorster 내각은 흑인국가들과의 화합정책(Detente Diplomacy) 추진.
- 1975년 Vorster 수상은 로데지아 백인소수정권을 협상에 의해 종식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세계여론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미비아에 대한 남아공의 정책변경용의 표명.
- 1975. 8 SWAPO(South-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봉쇄 및 Cunene강 Dam보호를 구실로 앙골라내전에 개입하였으나 동개입으로 쿠바군의 개입을 정당화시킴.
- 1975년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독립으로 남부아프리카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지원하는 보츠와나,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5개국을 짐바브웨, 남아공 및 나미비아 문제에 대하여 공동전선을 펴기로 하고 전선국가(Front Line States)를 결성.

- 1976. 6 인구 100만의 흑인 집단거주지 Soweto에서 폭동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
- 1977 유엔안보리는 대남아공 무기 금수결의.
- 1978 Vorster 수상사임, P. W. Botha 국방장관이 수상직 승계.
- 1979. 6 공보부 국가공급 오용(Mulder Gate)사건으로 Dr. C. Mulder 공보 장관은 국민당으로부터 제명당하고 Vorster는 대통령직도 사임.
- 1980. 2 짐바브웨 독립을 위한 총선거, 남아공은 Muzorewa 주교의 UANC(United African National Council)을 지원하였으나 무가베의 ZANU-PF(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Patriotic Front)가 압승.
- 1980. 4. 18 짐바브웨공화국이 정식독립하게 되자, 남아공은 동일한 사태가 나미비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경주.
- 1981. 4. 29 총선거조기실시, 국민당이 전 선거의석 165석 중 131석을 확보 계속 집권, Botha수상은 국민당당수로 재선.
- 1982. 2 혼혈인 및 아시아인에게 권력공유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인종차별정책 완화를 주장하는 Botha 수상에게 Andries Treurnicht를 중심으로 한 국민당내 극우파가 반발, 국민당에서 분당, 신극우 보수정당 창립.
- 1983-84년에 걸쳐 Botha 정권은 헌법개정을 추진, 1983. 9월 의회에서 승인,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어 1984. 9월 효력이 발생.
- 1984. 9 발효된 신헌법(대통령제로 개편)에 따라 인종별 3원제 의회가 구성

되어 혼혈인 및 아시아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흑인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향유하지 못함.

- 1984. 9. 14 P. Botha 대통령 취임
- 1985년에 들어 인종차별관계체규정이 수정 혹은 철폐되기 시작하여 1985년 4월 부도덕법(1927년 제정) 및 이종족간 결혼금지법(1949년 제정)이 폐지.
- 1984. 9월 이래 흑인 거주지역에서 소요사태 발생, 1986. 6월 전국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언론검열이 강화되고 보안군의 권한도 강화.
- 1987. 5월 실시된 백인의원 선거결과 집권당인 국민당이 총직선의석 166석 중 123석을 획득, 압승함으로써 개혁분위기가 퇴조하고 보수성향이 증대.
- 1988. 2월 17개 반아파타이트 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조치에 이어 해외정치자금도입금지법 성안, 반정부성향 2개 신문 정간 및 노동법개정안 의회상정 등 일련의 흑인세력 탄압책을 시행.
- 1989. 1 Botha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입원함에 따라 C. Heunis 헌법개발기획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잠정임명됨. Botha는 2. 2 국민당 당수직을 사직.
- 1989. 9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리하고 De Klerk 대통령이 취임하여 흑인과의 권력 공유를 통한 민주화 정책 추진 시사.
- 1990. 3. 20 남아공 점령지였던 나미비아가 독립.
- 1990. 2 De Klerk 대통령이 인종차별정책 철폐 및 만델라 석방선언으로 2. 11 만델라 ANC부 의장은 석방되었으며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
- 1990. 6 비상사태 해제.
- 1991. 6 거주지역법, 토지법, 주민등록법 등 인종차별 3대 악법이 폐지.
- 1991. 7 ANC는 남아공공산당(SACP)과 연합, 당체제 정비에 착수, 만델라

- 의장, 시슬루 부의장, 라마포사 사무총장을 선출, 민주화 활동을 가속화.
- 1992-93년간의 전정파가 참석한 다당정치협상이 중단과 폭력(1993. 4 크리스 하니 공산당 사무총장 피살)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결과적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1993. 10 과도집행위원회(TEC)가 구성되고 1993. 12 잠정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94년 총선을 위한 기틀을 구축.
  - 1993. 3 교육차별 관행이 철폐.
  - 1994. 4. 26-29간 최초의 흑백 다인종 자유총선이 실시되고 ANC가 63%의 지지로 승리. 320여년간의 인종차별에 의한 백인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1994. 5. 10 ANC 만델라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흑인다수정부(사실상 흑백 연합 정부)가 수립.

## 1. 정치제도

### 가. 특색

- 다수 정당제도에 입각하여 내각책임제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임.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입법권은 대통령 및 양원의회에 귀속됨.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음.
- 현 헌법은 93년 다당정치협상에서 채택되고 93. 12 의회의 승인을 거친 5년 시한부의 잠정헌법으로 94. 5 발효(현 국회에서 영구헌법을 96. 5월까지 제정예정이며 영구헌법은 99년 5월부터 효력 발생).

### 나. 구성

#### (1) 의회

##### (가) 의회조직

- 남아공 현국회는 5년 임기의 잠정의회(94-99)로서 하원(National Assembly)과 상원(Senate)으로 구성됨. 또한 하원과 상원을 합한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의회는 내년 5월까지 신헌법을 제정할 예정.

- 하원
  -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아프리카민족회의 252석, 국민당 82석, 인카타자유당 43석, 자유전선 9석, 민주당 7석, 기타 7석) 의장과 부의장이 있음.
  - 상임 위원회(27개)와 각 현안 발생시 별도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우선 각 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필요 법안을 전체(본)회의에 회부.
  
- 상원
  - 90명으로 구성되며 각 9개 지방정부로부터 10명씩 선출된 의원임.
  - 의장과 부의장이 회의 주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정역할 수행
  
- 헌법의회
  - 490명(상원 90명, 하원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음.
  - 96년 5월까지 신헌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별도 의장(라마포사 ANC 사무총장)과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
  - 46명의 헌법위원회가 있으며 각 30명으로 구성된 6개분과위에서 분야별로 신헌법을 논의하고 있음.
  - 헌법 제정 작업시까지의 잠정의회임.
  
- 회기는 연중임.
  - 95년은 9. 15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9. 15부터는 지방선거(11. 1)에 대비 휴

회할 것으로 보임

(나) 권한 및 기능

- 헌법에 의한 유일한 법률제정 기관
-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권
- 헌법개정권(상.하 합동 2/3찬성)
- 조약 협정 비준권
- 94-99년 기간 동안은 과도 헌법상 잠정국회이며, ANC, NP, IFP 3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97% 의원이 연립내각 정당 소속임.
- 법적으로 3%의 야당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립내각내의 NP와 IFP가 소극적 반대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또한 ANC와 NP, IFP가 정치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신헌법제정(96. 5) 이후에는 연립내각이 붕괴되고 ANC 다수정권이 탄생되리라 분석이 나오고 있음.

(다) 국회와 행정부 관계

- 국회는 행정수반인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갖고 국회가 제정한 법령의 서명, 공포 및 거부권을 가짐.
- 또한 내각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됨(예외적으로 비국회의원도 각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특별예외 조치를 취하여 임명한 것임. 현재 27명 각료중



26명이 의원임).

- 내각은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중요사항이 반드시 내각의 의결을 거쳐야 함.

## (2) 행정부

-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및 다수의 각료로 구성.

### (가) 대통령

- 헌법상 국가원수겸 정부수반으로 군 최고통수권자.
- 대통령은 국가의회에서 선출.
- 현 대통령 : Nelson Rolihlahla Mandela(94. 5. 취임)
- 대통령 권한
  - 법령서명 및 공포권
  - 법령거부권, 각의 주재권
  - 외교임면권, 신임장 접수권
  - 사면권
  - 헌법에 의한 국민투표 공포
  - 국제협정 교섭 서명권

### (나) 부통령

- 제1당 및 국가의회 80석이상 획득 정당에서 차지.
- 대통령 유고시 제1당 출신 부통령이 승계.
- 대통령 권한 행사시 대통령은 부통령과 상의토록 규정.

### (3) 사법부

- 남아공화국의 일반법 체계는 관습법인 로마식 화란계법(Roman Dutch Law)임. 민사, 형사소송, 증거, 상사문제 등의 분야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그 밖의 분야는 로마식 화란법이 지배적.
- 대법원장은 7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임명(헌법 재판소는 별도로 설치되어 소장과 10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대법원은 최고대법원과 지방대법원으로 구성.
- 모든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의 요구가 없는 한 해임되지 않음.
- 현 대법원장(최고 대법원장 : Chief Justice) : Mr. Justice MM Corbett
- 대법원 아래에 각지역별 지방법원(Regional Court)가 있으며 세부 행정구역 별로 310개소의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가 있음.

### (4) 지방자치제

- 남아공의 행정구조는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지방정부(Provincial Government), 지방단체(Local Government), 하부지방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 11월 1일로 예정된 선거에서는 Local Government이하의 단체장 및 의회를 구성하게 됨(중앙 및 지방정부선거는 94년 4월에 실시됨).
-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신헌법제정 작업 중 지방정부로의 권한 배분문제가 큰 쟁점인 바, 현 추세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어느정도 강화될 전망.
- 또한 RDP(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시행을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각 지자체가 자당에게 유리하게 RDP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 금번 지자체선거가 차후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을 보임.

## 다. 정당현황

### (1)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현집권여당)

- 94.4. 선거에서 62.6% 지지로 400명 국가의회 의석중 252석 획득.
- 현재 정부소속, 의회소속, 당소속으로 구분.
  - 정부소속은 ANC당적을 가지면서 대통령, 부통령, 정부각료 및 고위직 공무원으로 진출한 신정부의 핵심세력.
  - 국회소속은 상·하원진출의원들로서 현재 라마포사 ANC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헌법의회를 주도하고 있음.
  - 당소속은 11월 지방선거를 주도하며 각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중앙당과 정부와의 연락 역할을 담당.
- 현재 ANC의 당면 목표는 과도정부의 원활한 운영, 기한내 신헌법 제정완료, 금년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우고 있음.

### (가) 역사적 배경

- 1912. 1. 8        남아프리카원주민민족회의(SANNC)로 결성
- 1923            ANC로 개칭
- 1943            ANC 청년연맹(ANCYL) 결성

- 1958                범아프리카 협의체(PAL) 결성
- 1960                ANC 불법단체로 금지됨에 따라 해외망명 활동 개시
- 1990. 2. 2        ANC 정치활동 허용

#### (나) 주요조직

- 85명으로 구성된 중앙 집행위(65명은 전체당회의에서 선거, 20명은 ANC의 지방·중앙 당간부가 자동적으로 겸직)에서 주요사항 의결.
- 3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주요 당직자 개편 및 새로운 강령 채택.
  -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국가의장, 집행위원 선출.
- 각 분야별 6개부가 있으며 각부에서 3명씩 파견된 실무위원회가 있어 중앙 위의 의결사항을 집행.

#### (다) 성향

- 정치성향 : 자유개혁운동
- 지지율 : 전인구의 60-65%
- 연합 : 남아공산당(SACP), 남아노동연맹(COSATU) 등

#### (라) 기본정책방향

- 정치사회
  - 다당제에 의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 주장
  - 인종차별 철폐 및 다양한 인종, 문화 존재 인정
  -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잠정정권은 5년으로 제한

- 모든 개별흑인집단은 해체하고 비인종차별적인 단일기구에 의해 관할
- 의무교육은 초기 10년으로 하되, 점차 확대
- 보건정책은 단일국가 보건기구를 창설, 관리

○ 경제

- 과거 인종차별에 의한 경제 폐쇄 철폐
- 균등한 투자장려 및 각종 규제 폐지
- 국부의 조직적인 재분배
- 신경제정책 수립(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으로 노동, 경영 및 여타 경제 구조 재조정)

○ 외교정책

- 동구붕괴이후 미국의 영향력증대와 경제블럭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된 세계 신질서에 적극 대응
- 비동맹 정책을 견지하며 어떤 나라와도 군사블럭을 형성하지 않음.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축소에 노력함.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대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노력에 적극 협력
- 인종차별정책으로 초래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경제분야에 공헌
- 아프리카지역의 일원으로 민주·평화·안정·발전·상호이익을 위해 노력
- 세계 모든 국가와 관계를 맺고 OAU, 비동맹, UN 및 영연방등 국제기구활동도 강화, IMF, 세계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의 일원으로

로 역할 지속

- 여타 국제경제기구와도 민주국가로서 유대를 공고히 하여 국가 경제발전을 추진
- 핵확산 방지조약에 계속 가입하여 원자무기의 대량학살 위험으로부터 보호
- 아프리카와 인도양의 비핵지대 및 외국 군사기지철폐 지지 입장 견지
- 공해 및 우주의 평화적 사용 및 국제자원의 공동개발 추진

## (2) 국민당(National Party)

- 1912년 창립
- 당수 : F. W. De Klerk(89. 2월)
- 정강
  - 인종차별철폐를 통한 신남아공 건설
  - 모든 민족에게 특성과 희망에 맞는 사회, 정치기구를 가질 동등한 기회 부여
  - 백인 및 흑인 모두의 생활수준 향상
- 94. 4. 총선거에서 20.39% 득표로 국가의회 400석중 82석을 차지함으로써 1948년 이래 집권당의 위치에서 제2당으로 남게 되었음.
- 과거 인종차별정책을 통해 집권을 해왔으나 90. 2. 인종차별정책포기 선언을 통해 신정부 구성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 (3) 인카타 자유당(Inkatha Freedom Party)

-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한 연방제적 중앙정부 구성을 주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독자헌법, 경찰권, 조세권등의 강화를 추진
- Zulu족의 대변 자처(Zulu 왕조의 계승 주장)
- 현당수 : Dr. Mangosuthu Buthelezi(현 내무장관)
- 94.4. 선거에서 10.54% 획득(국가의회의 43 의석 배분)

### (4) 자유전선(Freedom Front)

- 백인 Afrikaner의 독립행정구역 창설을 통한 백인의 언어, 문화보호 창달
- 현당수 : General Constan Viljoen
- 94.4. 선거에서 2.17% 획득(국가의회의 의석 9석 배분)

### (5) 민주당(Democratic Party)

- 자유 진보주의 채택, 백인 지지기반으로 개인의 권리 및 다당제 주장 자본주의 경제정책
- 현당수 : Mr Tony Leon
- 94.4. 선거에서 1.73% 획득(국가의회의 의석 7석 배분)

## 2. 국내정치현황

### 가. 최근 민주화 과정(인종차별 철폐) 일지

- 89. 9. 20 De Klerk 대통령 취임
- 90. 2. 2 De Klerk 대통령의 민주화 선언  
- 인종차별정책 철폐 및 흑인 정치활동 허용
- 90. 2. 11 만델라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당시 부의장 석방
- 91. 12. 20 19개 정파가 참석한 남아민주협의회(CODESA) 협상 개시
- 92. 3. 17 백인 국민투표(협상 지지)
- 92. 6. 23 ANC 모든 협상 거부
- 92. 9. 27 인카타 자유당(IFP) 모든 협상 거부
- 92. 10. 6 협상거부 정파간 연합체 구성
- 93. 4. 1 다당협상체(Multiparty Negotiating Forum) 구성
- 93. 4. 10 Chris Hani 공산당 사무총장 피살
- 93. 7. 2 총선거를 94. 4. 27 실시키로 결정
- 93. 7. 29 보수당(CP), IFP, 다당협상에서 탈퇴(선거일정 확정에 반발)
- 93. 9. 다당협상에서 과도집행위원회(TEC) 구성 합의
- 93. 10. 7 다당협상 반대파가 자유연맹(Freedom Alliance, FA 그룹)으로 재결집
- 93. 11. 18 다당협상 전체회의(Plenary Session)에서 잠정헌법 및 선거 관련 법안 일괄처리
- 93. 12. 6 과도집행위원회(TEC) 구성 가동



- 93. 12. 10 만델라 ANC의장, 드 클레르크 대통령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 93. 12. 23 임시국회에서 잠정헌법안 통과
- 94. 2. 2 선거일 공표(4. 26-4. 28)
- 94. 3. 3 ANC 만델라 의장과 부틸레지 IFP의장 회담(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배분 조정을 통한 IFP 선거 참여에 합의)
- 94. 3. 4 선거참여정당 등록 마감(29개정당 등록 : 조건부등록 포함)
- 94. 3. 9 선거참여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 명부제출 마감(26개정당 제출)
- 94. 3. 7-14 보프타츠와나 사태 발생
- 94. 3. 27 요하네스버그에서 Zulu족 시위로 50여명 사망
- 94. 4. 19 IFP 선거참여 합의
- 94. 4. 26-29 최초 흑백 자유총선거
- 94. 5. 9 국회개원 및 대통령, 부통령 선출
- 94. 5. 10 신정부 대통령 취임식
- 99. 5. 영구헌법에 의한 정부수립(예정)

## 나. 국내정치 정세동향

- 93년도의 다당정치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잠정헌법이 채택되고 임시 집행위가 구성된후, 최초의 다인종 민주선거가 4. 26-29간 원만히 실시됨.
- 잠정헌법의 특기사항
  -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며(제1당이 차지), 20%이상 득표 정당에게는

부통령직 배분(20%이상 득표한 정당이 없을 경우 제1, 제2당에게 부  
통령직 배분)

- 각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명단을 국가후보, 지역후보로 나누어 등록하고,  
유권자는 정당에만 투표(정당 득표순에 의해 정당별 의원수 결정)
- 5% 이상 획득 정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 가능
-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서 ANC가 약 63%의 지지 획득, 최초의 흑인 다수  
정권이 94. 5. 10 발족
- 각 정당별 득표현황
  - \* ( ) 는 400명 정원인 국가의회 배분의원수
  - 아프리카민족회의(ANC) : 62.65% (252명)
  - 국민당(NP) : 20.39% (82명)
  - 인카타 자유당(IFP) : 10.54% (43명)
  - 자유전선(FF) : 2.17% (9명)
  - 민주당(DP) : 1.73% (7명)
  - 기타 : 1.70% (7명)
- 별도로 투표한 9개 지역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ANC가 7개 지역에서 압승.
  - Gauteng : ANC 57.6%, NP 23.9%
  - Northern Transvaal : ANC 91.6%, NP 3.25%
  - Eastern Transvaal : ANC 80.6%, NP 9.0%
  - North West : ANC 83.3%, NP 8.84%
  - Kwazulu Natal : IFP 50.3%, ANC 32.3%
  - Orange Free State : ANC 76.7%, NP 12.5%

- Western Cape : NP 53.2%, ANC 33.01%
  - Eastern Cape : ANC 84.3%, NP 9.8%
  - Northern Cape : ANC 49.7%, NP 40.5%
- 94. 5. 9 최초의 국가의회가 열려 ANC의 만델라의장을 대통령으로 뽑고 제1부통령으로 음베키 ANC 국가의장겸 국제부장을, 제2부통령으로 De Klerk 국민당 당수(전직 대통령)를 선출.
  - 상기 지방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9개지역별 의회가 94. 5 구성되었으며 각지역 대표인 상원의원도 선출되어 94. 5. 24 최초의 의회(국가의회 400명, 상원 90명 등 상하 양원 합동의회)가 개최.

#### 다. 전망

- 최초의 다인종 선거는 종족 및 정파간 갈등으로 폭력사태가 있긴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치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300년의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다인종 선거는 주재국 민주화의 기틀을 잡는 계기가 됨.
-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서 ANC가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최초의 흑인 다수정부가 탄생되었으나, ANC가 독자적으로 개헌추진을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
- 잠정헌법은 신정권을 ANC 단독정권이 아닌 백인 국민당(NP) 및 일부 흑인 정파가 권력을 공유한 정부를 구성토록 규정하여 현 정권은 사실상 연립

부통령직 배분(20%이상 득표한 정당이 없을 경우 제1, 제2당에게 부통령직 배분)

- 각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명단을 국가후보, 지역후보로 나누어 등록하고, 유권자는 정당에만 투표(정당 득표순에 의해 정당별 의원수 결정)
- 5% 이상 획득 정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 가능
-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서 ANC가 약 63%의 지지 획득, 최초의 흑인 다수 정권이 94. 5. 10 발족
- 각 정당별 득표현황
  - \* ( ) 는 400명 정원인 국가의회 배분의원수
  - 아프리카민족회의(ANC) : 62.65% (252명)
  - 국민당(NP) : 20.39% (82명)
  - 인카타 자유당(IFP) : 10.54% (43명)
  - 자유전선(FF) : 2.17% (9명)
  - 민주당(DP) : 1.73% (7명)
  - 기타 : 1.70% (7명)
- 별도로 투표한 9개 지역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ANC가 7개 지역에서 압승.
  - Gauteng : ANC 57.6%, NP 23.9%
  - Northern Transvaal : ANC 91.6%, NP 3.25%
  - Eastern Transvaal : ANC 80.6%, NP 9.0%
  - North West : ANC 83.3%, NP 8.84%
  - Kwazulu Natal : IFP 50.3%, ANC 32.3%
  - Orange Free State : ANC 76.7%, NP 12.5%

- Western Cape : NP 53.2%, ANC 33.01%
  - Eastern Cape : ANC 84.3%, NP 9.8%
  - Northern Cape : ANC 49.7%, NP 40.5%
- 94. 5. 9 최초의 국가의회가 열려 ANC의 만델라의장을 대통령으로 뽑고 제1부통령으로 음베키 ANC 국가의장겸 국제부장을, 제2부통령으로 De Klerk 국민당 당수(전직 대통령)를 선출.
  - 상기 지방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9개지역별 의회가 94. 5 구성되었으며 각지역 대표인 상원의원도 선출되어 94. 5. 24 최초의 의회(국가의회 400명, 상원 90명 등 상하 양원 합동의회)가 개회.

#### 다. 전망

- 최초의 다인종 선거는 종족 및 정파간 갈등으로 폭력사태가 있긴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치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300년의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다인종 선거는 주재국 민주화의 기틀을 잡는 계기가 됨.
-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서 ANC가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최초의 흑인 다수정부가 탄생되었으나, ANC가 독자적으로 개헌추진을 할 수 있는 의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
- 잠정헌법은 신정권을 ANC 단독정권이 아닌 백인 국민당(NP) 및 일부 흑인 정파가 권력을 공유한 정부를 구성토록 규정하여 현 정권은 사실상 연립

내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ANC 의 신정부는 급격한 정책전환보다는 구정권세력인 국민당과 협조해 국민당의 국가운영방법을 배워가면서 서서히 개혁을 시도.
  - 만델라 대통령은 94. 5. 국회 개원연설에서 화합과 국가재건을 내세우면서 정치보복을 일체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및 여타 정당과 합심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고 언급.
  - 다수 흑인의 기대감 충족이 신정권에게 과제이자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며,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정권은 ANC가 계획해온 국가재건발전계획(RDP)을 추진.
  - 만델라 대통령은 RDP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상수도·의료), 주택건설, 의무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현경제 체제유지를 위하여 중앙은행장을 유임시킴.
- 남아공은 적극적인 세계무대 진출을 통해 과거 국제적 고립에서 온 불이익을 일소하고 아프리카지역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 지역정세에도 많은 영향력 행사.
  - 아프리카지역 지역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
  - 미국 및 서방세계의 남아공 민주화에 대한 평가로 경제지원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남아공 경제발전에 많은 기대가 모아짐.

## 남아공 정치협상 과정

---

印 刷 : 1995. 12. 10

發 行 : 1995. 12. 20

發行處 : 統一院統一政策室

第 2 政 策 官 室

Tel : 720-2148

725-0762

---

통정 95-12-80

〈비매품〉